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五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米內新內閣性格

軍部、政黨、財界網羅 三位一體聯立內閣

十五日中組閣完了? 內務、經濟相에巨物主義

【東京電話同盟】米內新內閣의性格은 現下의 情勢에 鑑하야 軍部、政黨、財界의 所謂三位一體의 擧國一致、聯立內閣이고그 使命은 支那事變處理 그中에도新段階를 劃할만한 新政權의成立成長에 對한 積極的指導養成과함께 阿部內閣當時 廟議에서決定된 新政權樹立에 對한 基本方策을 實行에 옮겨 使命을 第一要件으로 할것은 勿論인데 그와同時에 特히 阿部內閣退陣의 最大理由의 하나로보이는 國內諸問題의 解決에重點을 두어 漸次財政政策의 遂行과 國民生活의 安定과에 當然全力을드릴것으로서 大藏、商工、農林等所謂經濟閣僚銓衡에는 特히 이點에留意하여 愼重을 期할方針으로보인다 (寫眞은 米內大將)

【東京電話同盟】米內大將은 十五日午前八時새로 組閣本部가된 芝公園에잇는 水交社로 드러가 即時廣瀨、石渡、小栗三組閣參謀를 招致하고 組閣第二日工作에着手하엿다 그리고組閣根本方針은 阿部內閣退陣의 國內情勢에 비치어 內務、大藏、商工、農林四閣僚의銓衡에 重點을두고 이와 政黨閣僚와의 關係를考慮하여大物主義로工作을進捗 貴族院方面으로부터도 適任者를 物色키로하고 同九時五十分먼저 檢事總長木村尙達氏의 來訪을求하여 法相就任을 要望한다음 元拓相小磯國昭大將에게 入閣을 懇請하는等 閣僚人選의 交涉을 進行한바 一方 陸軍에서는 午前十二時半부터 三長官會議를 開催 後任陸相銓衡을 進行한結果 畑陸相의留任을決定、此旨를 組閣本部로通達하엿다 이가치되어 午後부터드디어 政黨工作에 着手하기로되엇스므로 新內閣의 組閣工作은 十五日中에는 難關을 突破하고 大略順調로운 進捗을 보일것으로보인다

【東京電話同盟】米內大將은 十五日午前八時 새로히 組閣本部로 決定된 芝公園의 水交社에 드러가서 直時廣瀨、石渡、小栗三氏와함께 第二工作에 着手、위선政黨關係의 配定에 對하여 協議를 거듭한結果 政民各二名式 決定、兩黨總裁의 來訪을求하여 그協力을 要望하고 될수잇스면 閣僚의 銓衡을 求하여 그入閣을希望하기로 되엇다 一方政黨以外 方面의工作은 이와同時에進行시키기로하고 먼저午前九時五十五分 檢事總長 木村尙達氏의來訪을 求하여 法相就任을 要請하엿다 이여拓相에 小磯國昭大將의 入閣을 懇請하는等組閣工作은 海軍一流의 堅實한 모양을보여 着着進涉하고잇스므로 今日午後 陸軍三長官會議의結果 陸相人選決定을보면 組閣은十五日中에 完了할것으로보인다

新翰長의面貌

【東京電話同盟】米內內閣書記官長에 元大藏大臣石渡莊太郞氏가 나오게되엿다 稅制通으로 이름놉던 元大臣이 書記官長이된것은 我政界史上에도 드문바로서 米內氏의 作戰은 어디까지던지 奇襲戰法으로보인다 石渡氏는平沼內閣에 八個月間 藏相을지내 스며 『말더듬이』大臣이란 別稱으로 世間의 人氣를 끌엇다 大正五年東大法科卒業後 繼續하여 大藏省에서자랏스며 我官界唯一의 稅制通 七十四議會에서 公約한 稅制改革石渡稅革이 再[illegible]

米內大將豫備役編入

【東京電話同盟】組閣의 大命을 拜한 米內大將은 內閣首班으로 海軍武官服務令에依하여 豫備役에 編入키로된바 海軍으로서는 米內大將의 功績手腕等으로보아 現役에 남어잇기를 希望하고잇서 그實現手段方法을 硏究中이다

尹德榮子渡東

中樞院顧問尹德榮子는 十四日開催된 [illegible]大會에 參席하바 十五日午後一時發[illegible]으로 渡東[illegible]會에出席키로되엇다 그리고 [illegible]府의 田中通譯官이 十五日노조이로京城發 同子에 隨行하여 渡東하엿다

第六代海軍宰相

【東京電話同盟】新首相으로 米內海軍大將이 登場하엿다 海軍出身總理大臣은 大正二年山本權兵衛大將이 印綬를 띄게된것을 最初로 大正十一年 加藤友三郞大將、同十二年 再次 山本大將、昭和七年 齋藤實大將、同九年岡田啓介大將 그리고 今番米內光政大將으로 海軍宰相이다 六回째의 海軍內閣의 歷史를도라보건대 山本權兵衛大將은 大正二年 內閣倒壞後 時局收拾者로서 政友會의支持下에 內閣을 組織하엿스나 翌三年四月 시멘스事件으로突然瓦解되엇다 그리고大正十一年六月에는 華盛頓會議全權으로活躍한 加藤友三郞大將이再次政友會後援下에 登場하엿스나翌年에加藤伯이 急逝하게되어 山本伯이 뒤를이어 再登場、때마침 大震災中의帝都復興에 全力하엿스나同年末『虎門』事件突發로 掛冠하게되엇다 四回째의齋藤實大將은昭和七年五月 例의 五·一五事件으로 犬養首相이 悲劇的最後를 마친뒤의 困難한 時局收拾의大任을 질머지고 登場 有名한 舉國一致內閣으로 對立되엇다 그러나 帝人事件의 責任을지고 同九年七月 瓦解되엇다 岡田大將은 五回째의 海軍宰相이되엇는데 昭和十一年二月의 [illegible]事件에 直面하여 그 政變은 이가치 海軍內閣의 歷史上大事件이 부러다니는바이다 第六代海軍宰相이된 米內氏는先天的인 明朗한 性格에서 以上에말한 惡因緣을 一掃할것이다

木戶侯 下에서 [illegible]事件이 되고 米內五一事件에 [illegible] 石渡氏로서 생각하면 [illegible] 予想과 [illegible]하게 될것이다 나이는 今年이 六十一, 平沼內閣의 海相 [illegible]

어떤 米內氏와는 [illegible] 가지고 內閣에 [illegible] 日石渡氏는 [illegible] 조이氏와의 [illegible]

林內閣時代의 米內海相은品行方正 近藤秘書官談

新宰相米內提督은 林內閣時代 [illegible] 海相으로 [illegible]

米內內閣에米好感

【華盛頓十四日發同盟】米內大將에 大命이降下되엇다는 報道는 米國側에서는 저윽히 意外의感을 가지고잇는바 米國側消息通에서는 오히려 얼마間 安心한다는 모양인데 日米關係에對하여 好轉할것을 잇지안흘것은 通過의 事例에 비치어보아도 明白하며 米交涉을 從來보다 惡化시키는 일은업슬것이나 同時에 內閣更迭이 日米交涉에 如何한 新局面을 齎來할는지는 容易히 豫測할수업다고보고잇다

米內氏는 前海相으로 現政府首班 近衛公의 知遇를 얻어 [illegible] 當時에 [illegible]

伊太利도歡迎

【羅馬十四日發同盟】米內大將에 大命이降下되엇다는 十四日夜 라디오報道는 放送되엇는데 同大將은 이미三代의內閣에 海相으로서歷任하여 內外事情에도 精通하고잇스므로 伊國朝野는 [illegible] 閣僚如何에잇스므로 그러나 問題는 今後 [illegible] 財界方面의支持를 [illegible] 的協力內閣이 될수잇스리라고 觀測하고잇다

大起因이 歐洲政局의 變轉에 잇다고한다 卽 一、蘇聯으로서는 獨逸의對英佛戰爭에 끌려서 스칸디나비아、발칸、近東諸國에對하여 積極政策으로 나오고잇는바 有蘇聯政策은 英佛의利益과 全然背反되는 것으로서 蘇聯이 이가튼政策을 强行하는以上 英佛과의 正面衝突도 不可避의 運命에 잇슴을 覺悟치안흐면 안된다 一、萬若蘇聯이 英佛과 戰爭狀態로 드러갈境遇 蘇聯의海外通商은極東을除한以外는 英佛의 海軍力에依하여 封鎖될運命에 잇는것

蘇態度注目

昨秋노몬한 停戰協定成立을 契機로 日蘇關係는 非常한 轉換을 보여 以來今日까지 滿蒙國境劃定委員會의進行、通商交涉開催 確定及 紛爭防止、그리고 紛爭處理委員會設置에 滿北鐵支拂問題解決에따르는 日蘇漁業長期條約締結에關한 交約이成立되어 兩國關係는 正常化에의 軌道를急 템포로 進行되어왓다 如斯히日蘇關係가 急轉回를하게된 一、此間日本의存在는 日本이獨蘇包圍陣의 一環으로 英佛에 加擔하면 蘇聯은 後背에强敵을두게되며 또蘇聯의 海外通商은 全然悲運에 逢着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蘇聯의對日態度는 極東의安全瓣으로서 日本의 中立性維持를希望하고 다시나아가 蘇聯의 對歐策遂行에 日本이가진 政治、經濟的方面을 利用하려는 底意를가지고잇는것은 明瞭하다 以上이 蘇聯의最近 對日政策의 核心을 形式하고잇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昨秋以來 兩國間의 交涉에 잇서서는 거의 多年間 懸案解決에 着手하엿슴에 不拘하고 아직 支那事變을 中心한 政治問題에는 抵觸치 안햇는데 今次在政權 樹立을 目捷에두고 當然我大陸政策과 蘇聯의 對蔣援助를 關目으로한 支那進出政策이 上提될 段階에 노혓다 卽支那事變處理解決은 我國最大의 對外國策이며 따라서 이問題의 上提로 日蘇外交關係는 마침내本格化의段階에드러가게되엇는데 蘇聯이 今後 自己의 對歐策及 歐洲政局의 動向及 極東方面의 諸情勢를 綜合하여 如何한 態度도 나올는지는 今後日蘇를 卜하는것이라하여 자못重大視된다

上海서歸京 柳川總務長官等

【上海十五日發同盟】興亞院總裁柳川總務長官은 米國行의 柳川總務長官은 十五日午前八時空路以前에도 [illegible]大將三郞、水谷、阿部等 三代議士도 歸京하엿다

陸相은畑大將留任 陸軍三長官會議推薦

【東京電話同盟】陸相에는 畑俊六大將이 留任하기로 決定되엿다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後任陸相銓衡次 午前十時半부터 參謀本部에서 陸軍三長官會議를開催 閑院參謀總長宮殿下를 奉始 畑陸相、山田敎育總監이 出席하여 協議한結果 畑陸相을 留任케하기로 決定、畑陸相은 十五日午後 組閣本部로 米內大將을訪問 右結果를回答키로되엿다 (寫眞은 畑陸相)

牧野伸顯伯에 宮中杖允許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新年御恒例에依하여 顯官縉族等을 御優遇하옵시려는 御軫念으로써 八十歲의봄을마진 牧野伸顯伯、有馬良橘、河野文二兩樞密顧問官에對하사 宮中杖을下賜하옵섯다

拓相에小磯大將決定

【東京電話同盟】拓務大臣은 小磯國昭大將으로 決定되엇다

阿部內閣善處로 有志代議士會解散

【東京電話同盟】各派有志代議士會는 阿部內閣善處의 目的을達成하엿스므로 十五日正午부터 衆議院議長官舍에서 解散式을 擧行하고 다음과가튼 聲明을發하고 散會하엿다

◇聲明 昨日阿部首相이 辭表를捧呈한것은 有志代議士會의要望과合致되어 我等의 기뻐하는바이다 至今에 時局은더욱 重大 我等은一意奉公의誠을다하여 現下時局에處할것을期하는者이다

全參議辭表提出

【東京電話同盟】阿部內閣參議의 參議會는 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 久原參議를除한 全參議가出席 阿部內閣의總辭職에따라 慣例에依하여 一旦全參議의辭表를 모흐고저한다는提議를 一同異議업시 承認하고 散會하엿다

法制局長官 廣瀨元厚相

【東京電話同盟】法制局長官에는 元厚生大臣 廣瀨久忠氏가決定되엇다

和、白國境에戰雲 國境全線에걸처獨軍集結

【코펜하겐十四日發同盟】獨軍의 白耳義、和蘭國境集結說은 各方面에 多大한反響을 이르켜白耳義和蘭及 英國은 벌써軍隊의 休暇를 取消하고 待機의姿勢를 取하게되엇는데 코펜하겐에 達한情報는 獨軍의 集結狀態에對하여 다음과가치 報道하고잇다 獨逸軍은 獨和國境全線에 걸처集結하엿는데 그中에는 機關銃 自動自轉車隊도잇고 小型모―터뽀―트를 護送하는特別部隊가 到着되고잇다고 傳한다 그리고이와가치 異常한獨逸軍의 活動은 他地點에서도 보이는바 多數의 飛行機가 칼르市와獨逸 和蘭 白耳義國境間에 集結되고잇다

白耳義當局否定

【브랏셀十四日發同盟】白耳義國內에서는 軍隊休暇取消令을中心으로 各種流言이돌고잇는데 白耳義外務當局은 十四日이軍事的措置는 全혀地方的性質의것으로白耳義의國際關係가 惡化한事實은 絶對로업고 獨白關係惡化를否定하엿다

今年度北洋競賣漁區 近日中海蔘威漁業廳서發表乎

日蘇漁業暫定協定은 十三日樞密院의 批准을經하여 正式調印을보게되엇는데 이에依하여 今年度北洋操業의 基本工作은 確立된셈인데 一方每年二月末에海蔘威極東漁業廳에서 施行되는漁區競賣에關하여 規定에依하면競賣期日二個月前에 蘇聯當局으로부터 公告하기로되어 잇슴에不拘코 이미暫定協定成立後임에도競賣公告가아직 업서 이리하여서는 漁期前에 順調로운 計畫을세울수업기때문에 當業者間에서는 發表를 待機하고잇는바昨年의 例로보아도 아마 一兩日中에는 公告될것으로 보인다(昨年은一月十五日)그리고여러가지 情勢로보아 今年度는아마新漁區의 發表는 保留되고更新漁區發表와 同時에 競賣도順調로히 行해질것으로 보이며 長期本條約締結交涉과 關聯하여新漁區의開設을 蘇聯에 對하여要請할것으로보인다

日蘇通商交涉은 昨日莫斯科에서 日蘇兩國代表間에 開始되어 먼저我方代表로부터 蘇聯代表에對하여通商協定條件을 提示하고이것을 中心으로 雙方意見을 交換하고 散會하엿는데 第二回會談은 繼續하여 數日中 再開될模樣이다 그러데 右會談은 今後順調로 될것으로 豫想되고잇는데 이에따라 我對蘇關係者間에서는 今次交涉에 倂行하여 多年의懸案인 北樺太石油問題의 拔本的解決을 要望하는소리가 노파가고잇다

日蘇石油問題의 上海交涉에서石油問題의 解決은 明瞭한것이라고 今次交涉에 서 目되고잇는 하나이다 即 北樺太의 石油資源의 開發이야말로 右 問題解決의 捷徑이라하며 北樺太石油問題의 解決이 새로운 角度로부터 要望되게되엇다 그리고 右要望者側의 見解에依하면 現在日蘇雙方과도戰時下에잇서 石油需要의 增高를招來하고잇는바 從來開發의 機運을 보지못하여오든 北樺太의石油資源을 協力開發하면 現在一個年四十萬噸前後의產油量을百萬噸으로增產하는것도 不可能이아니다 따라서 日蘇石油問題의解決에當하여 北樺太石油資源의 協力開發이 決定的要素된다할것이다

增米計畫豫算은 全面的으로承認 得能技師歸任談

朝鮮米增産計畫의 豫算打合次渡東中이던 得能技師는 十三日歸任하엿는데 다음가치말하엿다 米穀增産의 豫算은 全面的으로認定되엇는데 物資와技術員問題가 그다음가는 難問題이다 企畫院方面에서도 米穀增産을 擴充生産力擴充部門으로서優位性을 認定하는 方針일것이나 現在狀勢로는 얼마나한物資를 要望할수잇슬가는 未知數로 一月下旬이나 二月中旬께 도라서일하기로되엇스므로 그時에具體化될것이다 資源以上으로 難關인 技術者問題는 農林省과交涉하여 보앗스나 極力協力하여 朝鮮에 技術者를 보내주기로 말이되엇슴으로 이것도 具體的으로는 決定을보지못하엿다 如何間資材、技術員의問題는 增[illegible]

八面鋒

米內前海相에 組閣大命 降下。

◇陸軍에선 近衛公만 希望햇는데、近衛公이 絕對謝絕。

◇그러나 陸軍部內에선 陸軍사람을 推薦치안흐니 政黨에갈수도업고、現役이나 海軍에서 사람을 求할밧게。

◇米內大將은 駐蘇武官으로 잇섯슴에 被經濟를 硏究햇고、

◇書記官長엔 前藏相 石渡莊、大藏、農林、商工等 經濟相에는 財界又는 政黨에서 人選 짓보나?

◇今日부터 小學校 入學願書接受、今年도 入學地獄을 어찌할 모양이러나。

◇財政、經濟政策에 重點을하나를 두는것이 確實。

◇有田外相、吉田海相、結城藏相 쯤이면 阿部內閣보다는 좀 暑。

◇政黨에서 어떤 人物이 드러올가가 興味의 焦點。

◇今日은前國務長官이 對日禁輸案을 主唱。

◇往年의 迷夢을 아직도 못깨인모양인가。

樋口少將動靜

【上海十五日發同盟】海軍上海方面根據地司令官樋口修一郞少將은 公式訪問을바닷스므로 十五日午前十時 新開港司令部로 同大佐를 訪問答禮를하엿다

土地改良懇談會

農林局에서는 十五日 午後一時半 半島호텔에서 松原殖銀總裁 林殖銀頭取 上內東拓理事 三井不二興業社長等 民間有力者의 參集을求하여 土地改良 懇談會를開催하바 同席上 總督府側으로부터 增産計畫案의 詳細한說明이잇슨後 그施行方法 其他에對하여 意見을聽取하는 同時에 一般의協力을 求하엿다

産計畫遂行과아울러 重大難關인데 現下米穀增産의 重要性에 鑑하여 어느程度의 不利不便은 참으면서 增産計畫達成에邁進하고십다 絕大한協力을 바라는바이다

人事·集會

▲松島浦氏(京城地方專賣局長)新任人事次來社

辭令

依願免本官 淵上 寬眞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補咸鏡北道産業技師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戶嶋利男
陸軍步兵少尉正八位
補咸鏡南道産業技師(各通)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小檜山英一
補慶尙南道産業技師 津谷宇米三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權 重明
補慶尙南道産業技師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松本 嘉一
補群山公立中學校敎諭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竹中 毅
補海州西公立中學校敎諭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野口 秀捷
朝鮮公立中學校敎諭
任總督府農事試驗場技師(六等) 園田 宗介
八等
總督府農事試驗場技手從七位勳
任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木村 馬治
總督府遞信書記從七位勳八等
陞敍高等官二等
總督府技師從四位勳四等 池井 岱治

借用證書紛失廣告

昭和十四年十二月四日附債務者辛興福氏保證人昭和十四年十二月十九日附金五百圓也 (返濟期限昭和十五年十二月十日) 借用證書를紛失하엿사오니 此證書는無效로된것이오니 玆以廣告

昭和十五年一月十六日
辛興福

朝報案內

社員 地方駐在社員大募集(詳細書面照會)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一 新興社

急告 雜貨特約店募集 上品一般同雜貨地方特約店契約可能한資本金五百圓以上을要함 但見本代金送料共六圓을要함 元山府本町五丁目二七八番地 廣益社

手足 [illegible]

優秀한 胃腸救急藥으로써 賞贊을 博하는
安川コロダイン (고로다인)
東京 安川晃榮堂
全國藥店에有하다

流行歌 가슴은追憶
吹込 宋金鈴
C-2018
一枚金一圓二〇錢
콜럼비아普及盤

四十錢均一 新本 定價無視 原價思ひ切った ハガキ一枚でスグ送本

漢和大辭典 12 / いろは新辭典 6 / 實用新辭典 9 / 模範新語辭典 6 / 中等英和辭典 6 / 佛和新辭典 9 / 獨和新辭典 9 / エスペラント語新辭典 9 / 三體ペン字辭典 6 / ペン字入手紙實典 6 / 新らしい手紙の書き方 6 / 青年手紙上達帖 9 / 新時代の女子書翰文 6 / 戰地に送る慰問手紙集 6 / 出征兵士に送る慰問の手紙 6 / 小學生の慰問文の作り方 6 / 算術の解き方考へ方 9 / 算術の基礎知識 9 / 代數を初めて學ぶ人へ 9 / 珠算獨習講義 9 / 最新珠算の學び方 6 / 正しく學ぶ英語の學び方 6 / スピード獨習英語の近道 9 / ABCより會話まで 6 / 獨逸語入門 9 / 社交と挨拶の仕方 9 / 五分間演說集 6 / 大雄辯名演說集 12 / 文例選集 6 / 現代雄辯十講 12 / 皇民の書 9 / 今日を築くまで 10 / 思想善導 8 / 立志より成功への近道 8

御歷代天皇巡拜記 10 / 觀音經新釋講話 12 / 神詣と溫泉めぐり 9 / 工藝大圖鑑 10 / 植物圖鑑 8 / 滿鐵を語る 12 / 朝鮮を語る 12 / 將棋の手ほどき 9 / 商業の覺へ方 6 / 日本歷史年表 9 / 日本歷史の知識 6 / 日本地理の知識 6 / 帝國軍歌集 6 / 不老長生秘話 9 / 合理的小賣經營法 6 / 廣告文案集 6 / バイロン詩集 6 / ハイネ詩集 6 / ゲーテ詩集 6 / 短歌の作り方 6 / 俳句の作り方 6 / 經濟肥料の作り方 9 / 實用肥料の施し方 9 / 促成栽培法 9 / 甘藷作讀及栽培法 9 / 趣味の養鷄法 9 / 農村發展の基礎 6 / 青少年就職の指導 9 / 受驗必携の秘訣 6 / 苦學上京案內 6 / 中學百科寶典 9 / 少年航空兵受驗案內 6 / 海軍志願讀本 6 / 記憶力增進法 6 / 藤村少年讀本 第一卷 9 / 第二卷 9 / 第三卷 9 / 第四卷 9 / 第五卷 9 / 第六卷 9 / 家庭醫典 12 / 理想の家庭 6 / 家庭防空讀本 10 / 家計簿 9 / 藥用植物圖解 9 / 一代の運勢大鑑 9 / 正しい證書の書き方 9 / 名つけ字典 6 / 戀愛と結婚の書 6 / 結婚讀本 6 / 秘密百科寶典 9 / 法律の知識 6 / 國民としての常識 6 / もの知り辭典 6 / 陸軍の知識 6 / 入營の心得 6 / 忍術氣合術の正體 6 / 神通催眠術皆傳 6 / 護身術上達極意 6 / 柔道上達極意 6 / 呪文まじない秘法 6 / 夢判斷 6

一萬圓物語 10 / 金融大功記 10 / 岡辰大福帖 10 / 賭けた人々 10 / 貨殖百物語 10 / 宣傳時代相 10 / 黃金街を行く 10 / 日本海海戰 9 / 征空一萬五千粁 6 / 北支より中支へ 6 / スパイ戰秘話 6 / 世界文學名著集 9 / 偉人の遺訓双書 9 / 一休と曾呂利 6 / かなの解釋辭典 6 / 最新支那語獨習 6 / 新聞を讀む知識 6 / 生物學の知識 10 / 日滿支會話入門 6 / 經濟學の知識 6 / 世界の格言と警句 6 / 宇宙の秘密 6 / 音樂の知識 9 / 新らしき年中行事 6 / 自動車操縱法 9 / 自然化學の知識 6 / 日常科學の知識 6 / 化學萬能の世界 6 / 化學工業品の作り方 9 / 自修化學精解 6 / 劍舞と詩吟 6 / 寫眞の理論と實際 9 / 寫眞の撮り方 9 / 略書のかき方 6 / 肺病肋膜の名灸秘傳 9 / 初步の電氣學 9 / 麻雀最新戰術 9 / 軍人手紙文 6 / 日本童話集 12 / 茶目の日記 12 / 偉人の修養 6 / 女大學 6 / 考へ方一千題 6 / 現代文學の知識 6 / 青年訓練教本 9 / 相撲の手ほどき 9 / 英語重要熟語の研究 10 / 英作文のこなし方 6 / かくし藝全書 6 / 最新流行歌集 6 / 浮世繪名作集 6 / 裏の裏を公開 之れが世間だ 9 / 海と兵隊 9 / 陸と兵隊 9 / むら時雨 12 / 伊達振子 12 / 男山 12 / 高倉長右衛門 12 / 世界大地圖 6 / 支那戰局地圖 6 / ソヴェイト聯邦大地圖 6

緊急公告 노치지말라 사서 아차 絕好 스
○四冊以上御代金引替大歡迎ハガキ一枚でスグ送本。

無代進呈
●後援을感謝하며 더욱大奉仕斷行함
●十冊마다 一冊式進呈함
○短期間の大特賣!!今スグ御申込みなさい。
東京・杉並區・東田町通一ノ二十四
共同出版協會特賣部
振替東京一九〇一九番
●(연락選定) 申込하실때……반드시新聞紙名……을써너어주십시요●

八十萬府民에種痘一齊施行!
十六日부터九日間、時間場所、警察과各町會가配定通知

천연두환자는 위생당국의 필사적방역에도 불구하고 만연에 만연을 거듭하여 어느틈엔가 벌서 전조선각지에퍼저 누게 유백오십이명이라는 놀라운기록을 지엇는데 특히 경성시내에서는 그동안 경성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위생과와 부내각경찰서를 총동원하여 별별수단을 다하여 가진노력을 다하엿슴에도불구하고 벌써 시내에서만 십일명의환자를 내게되어 금후 점점더 퍼지면퍼젓지 줄어들기세는 보이지안는다 그래서 경성부에서는 부득이 여기대한 비상처치로 명십육일부터 일제히 경성부민전부에 대하여일제히 우두를 너키로되엇다 기한은 십륙일부터 이십사일까지 아흐레동안인데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소관경찰서와 정회를 통하여 알려주기로 되엇스니 일반가정에서는 잊지말고 우두를마저야 한다 그리고 우두를마즌지가 일년이 채못되는 사람은다시 맛지안허도 관계업스나 그외의사람은 아이어른을 가릴것업시 전부가마저야한다

危險區域에든京城府一圓

府民의協力要請
"무서운病菌은處處에퍼젓다"
荻野京城府衛生課長呼訴

명십육일부터 시작되는 부내일제종두실시에 관하여 십오일 전야(荻野)경성부위생과장은 팔십만경성부민에 향하여 다음과 가치 호소하여 부민의 협력을 요망하엿다

작년말 함남에서발생한 천연두환자의 병독은 전조선적으로 퍼드려저서 루게 유백오십이명의 환자를 내엇는데 경성부에서도 그동안 경기도위생과와 부내각경찰서와 협력하여 예방에 노력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벌써 십일명의 환자를 내기에 이르럿다 환자를 내인 장소를 그때그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림시종두를실시하여 예방에 노력하고잇는중인데 그중에는 일월구일에 지성으로 진단이되한자와가튼것은 영등포(永登浦)에서 뻐스를 타고 도전차로 바꾸어타가면서 대학병원까지 두번식이나 왕성한 사실조차 발견되엇스니 그동안오고가는 사히에 병균은 벌서 부내각처에 제멋대로 퍼트려젓슬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안타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일년이내에 종두를 바든 사람은 내여노코 그외의 부민전부에대하여 명십육일부터 명이십사일까지아흐레동안에걸처 일제종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엿스니 당국이 뜻하는바를 잘양해해주어서 부민은 일치해서 예방에 만전을 도모하기위하여서 경찰 또는 정회에서 통지하는날짜와 장소에서 한사람도 빠지지말고 종두를 바더줄것을 간절히부라하는바이다

一齊種痘는 大正十三年四月以來

명십육일부터 구일간에 걸처 경성부내에 일제종두를실시하기로 되엇는데 이러케 부민전부에 종두를 실시하기는대정(大正)십삼년 사월에 한번잇슨후 이번이처음이라는 일본서이번두회(痘瘡)가 얼마나 놀라운경인가를 짐작할수가잇다

이때문에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게원총동원으로 밤잠을못자고뉴망중인데 이미부분적으로종두를 실시하고잇는바 부위생떼에서는 위선오십만명을 표준하고으두약을 준비해노코 대기자세를취하여 잇는중이다

쪽제비가죽 窃取犯逮捕

충남강경(江景)에서 쪽제비가죽유백장을 훔처가지고 서울로 팔려와(남)남이 십오일아침본정서에 부잡혓다

이날 오전아홉시쯤 본정서신정식(申正楠)순사가본래정(蓬萊町)일정목 유십팔번지 강대윤(姜大有)의 모피위탁판매소에 족제비가죽 유백장을 팔러왓던 충남논산군(論山郡)출생 전과이범 이영대(李永大)(二)가 거동이수상하여 경성역앞 파출소에다려다가 취조하여본바 이가바로집사일 충남경찰부로부터 수배중이던 강경읍본정(本町)삼일상회(三一商會)전재진(田在鎭)의 이

町會가居中斡旋
志願家庭은緊密한連絡을
府內小學入願願書接受開始

오늘부터 부내 삼십오공립소학의 입학원서접수를 개시한다 원서는 지원가정에서 정회에제출하기로 되엇는데 정회는 이것을 한데모하가지고 일정한호적대조일(戶籍對照日)에 부청에 내여놋는다 따라서 지원가정에서는 호적대조일전으로 정회에 원서를 제출해야된다 모든수속에잇서 정회가 알선역으로 중간에 서게되니까 지원가정에서는 늘정회와 연락을취하는것이 조타 그리고 원서는 기일을노치면 아니됨으로되도록 일직암치 내여놋는편이조흘듯하다

墜落한修道僧

가장 바른길을 걸어야할수도하는 중이 남의물건을 훔치고 경찰에 부잡힌일이잇다—부내 홍제정(弘濟町)일백구십구번지건봉사포교소(乾鳳寺布敎所)에서도를닥고잇든중 유금천(柳金千)(31)은 그포교소불당에잇는 사진기한개 발라(鉢羅)는개 라중(打◇)일곱개등 시가오백여원을 훔치고 얼마전에 죽서정 건봉사중앙포교소로 옴아가서도 의연그버릇을버리지못하고 건미(乾微)는 지금까지 누가 훔처갓는지전연엇지못하고잇섯는데 이번에야 유천금의 소행이 엇던것이판명되엇다

鍾路署取調의 金密輸事件擴大
其中首犯一名爲先送局

종로경찰서에서 구렴중이든 금밀수범을 검거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취조에따라 사건은 확대하여 함남북에 빼처 금매입상등 다수가연락하여 상당히 큰규모로 금밀수를하여오던것이들어나 피검자를 위시하여 하엿는데 이지음 취조가대강긋낫스므로 그중서병덕(徐丙德)만을 우선십오일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하엿다

吐血하는男子
飮毒으로判明

십삼일 오후다섯시쯤 부내팔판정일백십오번지압 석벽우에서 어떤남자가 토혈하며 고민하는것을 소격정파출소원이 발견하고 즉시 의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시켯는데 그는 흑석정(黑石町)일백오십■번지에사는윤장수(尹長壽)(三五)로서 생활난으로 자살을도모하고 양재물을먹고 고민하던것인데 그의몸에는 유서두통까지 가지고잇섯다한다

男給仕採用
年齡十五歲以上十六歲까지小學校卒業程度 希望者는一月十八日正午까지自筆履歷書持參來談하시오
朝鮮日報社庶務部

餘錄

우리들의가장 아름답고 큰당예는 에기들을 잘키워 공부잘시키는것밧게업슬것이다▲하여야만할 일중에 제일큰것뿐이 아닐것이고 가장즐거운일중에서 으뜸되는 일이다 ▲오늘부터 서울선 소학교입학원서를접수한다 금년는 또얼마나 학교문이 메이게 모일런지 ▲이는때 학교가부족한탓이다 고하지만 자녀교육에 저마다열심하는결과도 생겨난 띠하사정임에 틀림업슴을 생각할때 입학난의 고통도 한끗으로는 반가운현상이라 하지안흘수업다▲하기는날보선 한재지에서는 그처럼 흉년한재에 곤난을겪그면서도 무슨일이던 다 제처노코 아이들 학교에보내는것을첫손 꼽는다는것은 눈물겨웁게갑격할뿐이다 ▲이런사정을 생각할때 소학생도 중학생도아닌천문 대학생들이 근자에 어버이의정성도 사회의기대도 제처 지도 이즌듯 행색이 저렬해가는것이 만히보이는것은 딱하일이다 ▲착집이니, 다마쯔끼집이니하는곳의 풍경은 더구나 경계할일이다

七千警防團員總出
壯嚴한「始式」擧行
今朝、城東院頭서南總督、軍司令官代理臨席下
改編後最初의陣容査閱

밝혀잇는 이청유백년의 신춘을마지하여 경기도에서는 총독과군사령관의 임장하에 경성부내 각경방단의진용을 사열하여 의기(意氣)를 진작하려고 십오일오전열한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남(南)총독 군사령관(代理山口參謀)임장하에 경방단시설이래 제일회의 경방시식(始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

식은 부내유개소 경방단원칠천명의 총독에 대한경례로시작되어 궁성요배 전몰자위령묵도 군의무운장구 기원묵도가 잇슨다음 각대대별의 검열이 잇섯다 다음 영지봉독감자(甘蔗)지사의 훈시가잇고 고(高)경찰부장선창으로 황국신민서사 제창에이어 경방단가의 합창마지막으로남총독선창의 만세봉창이잇섯고 정오경에 식을 마첫다

(사진은 경성경방단원의 사열식과 남총독의 만세봉창)

列車轢殺事故

◇……경기도시흥군서이면이동리(始興郡西二面二洞里)에사는신년수(申年秀)(■)라는사람은 안양 금포장 사이의 철도에깔려죽어 잇는것을십사일아침에 철도선보수가발견하엿다 그는전날 밤에 부산으로 가는 제일배사렬차로 남경성역에서 타고 금고역에서 나려서그역앞술집에서술을 만히 먹고 취하여자기집으로 도라가던 도중에깔려죽은것이분명하다

【春川】山火의張本人
盜掘黨大掃蕩
山寨燒却、器具押收

십오일경무국에 들어온보고에 의하면 강원도경찰부에서는 지난번의 외금강산화는 중석도굴당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래 계속내사중이던바 최근에 이르러 중요한단서를잡고 십삼일새벽부터 시사일에걸처 강경찰부장(■■■部■)이 총지휘가되어 고성(高城) 양양(襄陽)통천(通川)각서원과경방단원을 총동원하여 외금강세두평(細谷坪)일대를 삿삿이뒤저 도굴당의대장격을 시작이나 체포한외에 그들의소굴인 산막열세채를 불태워버리고 도굴에쓰든기구 오십여종을 압수하엿다 그들의 취조에따라서는 이때까지 원인모르는 물로서 이야기꺼리가 되어잇든 금강산불의 원인이 판명될것으로기대되며 강원도에서는 금후도 매때로 일제검색을하여 영원히금강산불을업새는 도굴당의 섬멸을 기하고잇다

志願兵講演會

【元山】오는 십육일오후세시원산용동소학교강당에서는 육군특별지원병강연회를 열기로되엇는데연사는최남선(崔南善)씨라한다

무당안해를 죽인男便

무당안해를 때려죽인남편─경기 안성군일죽면송천리(安城郡一

燒失
損害十五萬圓
大同鑛業製錬所

【咸興支社電話】함남경찰부에들어온보고에의하면 지난십사일오후여섯시삼십분에함남장진군장진면(長津郡長津面三里)에잇는대동광업주식회사(大同鑛業會社)장진광업소 소동(小洞)제련소에서 불이나서 건평삼백여평되는 건물전부를태워버리엇다 원인은조사중이고 손해는 최소한도로약 십오만원가량되리라고한다 요행 인명의 사상은 업섯다

大同鑛業本社側談

이에대하여 시내견지정(堅志町)에잇는 대동광업회사에서는 다음과가치말한다

회재가 낫다는보고는 왓는데 피해정도는 극히적으니 안심하라는것뿐입니다 오늘본사에서사원을 보내조사케 되엿는데자세한것은 모르고그런도로 알뿐입니다

行旅者凍死

【開城】영하십사도에는 요지음

文人書畫展
開幕

문인협동인회(文人協同人會)주최 북지황군위문의 문인서화전람회는 개장시간전부터 『조선의예술』을 감상하기위하여 모혀드는 관중으로 장내는 자못성황을 이루고잇다 (사진은장내)

早慶氷上競技成績

【日光細尾發東盟通】 第三回早慶滑走競技第一日은 十四日午前八時부터 日光細尾溜氷場에서 擧行되엿는바 男頭千五百米에는 早大選手가 三位까지 占領하여 十二點을 리ー드하엿고 五千米에는 慶應選手의 奮鬪로 早大를 追하여 第一日의 得點은 早大가二點을 리ー드하재 마치엇다

◆千五百米(세파렛·코ー스)
1 南洞(早大)二分三〇秒五 2 山下(早大)二分二九秒八 3 市川(早大)二分三三秒 4 田中(慶應) 5 杉山(慶應) 6 渡邊(早大) 7 島田(慶應) 8 松田(慶應)
◆得點 早大二十四、慶應十二
◆五千米(세파렛·코ー스)
1 深井(慶應)九分一五秒 (大會新記錄) 2 村上(早大)九分三一秒六 3 中條(早大)九分三五秒四 4 齋藤(慶應) 5 藤原(早大) 6 佐佐木(慶應) 7 秋(早大) 8 角本(早大)
◆得點 早大十三、慶應二十三
合計 早大三十七、慶應三十五

朝鮮學生陸聯事業案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에서는今年度事業案을 다음과가치 決定하엿다
第六回京城水原間驛傳競走(五月五日)
第七回朝鮮學生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六月十五、六日)
第七回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六月二十二、三日)
第五回學生對一般對抗陸上競技大會(六月三十日)
第三回朝鮮學生陸上競技秋期大會(十月二十七日)
皇紀二千六百年記念事業(秋期)
一般對九大定期對抗陸上競技大會(六月九日)(於京城)

朝鮮은氣候關係로
練習量이不足하다
滿洲軍이본朝鮮氷上界

第一回朝滿對抗綜合氷上競技에 由關하여 氷上競技選手의 活躍은 빗나 처음으로 日滿對抗에서 勝利를 하엿다 이 四日 城滿對抗에 出戰한 滿洲氷上界의 河村寬男、木谷德雄、朝鮮女子스피ー드의 이미勝利한 女子部스피ー드의 朝鮮이쎤산을드리고 하키ー의 滿洲軍에 敗해온 戰鬪狀況 등은 朝鮮選手들은 무엇보담도 練習量이 不足한까닭에 氷上에서 迫力이 不足하다 女子選手들은 아직도 스케ー트의 實性을 잘認識하지못하것갓다 男子部의 金鄭鎭君의 直線스트로ー그는 놀랄만치 速力이 잇섯스나 曲線의 走法은 몸의 安定性이 업서보히엿다 그리고 滑走當時에 꾸부렷던 다리를 쭉신 펴지안는選手가 잇섯는데 이것은 推進力에 影響이 적지안흘것이다 씨ー슨의 스케ー팅練習은 體力을 養成하기위하여 心臟이 許하는範圍에서 練習을 하여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朝鮮선 滿洲보다 한달이나 늣게씨ー슨이 돌아오는 關係로 氷上競技聯盟에서는 經費가許하는限 第一線選手들을 十一月初旬부터 北滿에 다리고가서 規律잇는 合同練習이라도 잇서야할것이다 選手各自에게 一任해둔다면 進步가 늣슬것은 自明하다 全般的으로 朝鮮選手의품은 조와다고본다 아프로 滿洲와도 자조連絡이잇서 斯界向上에 邁進하기를바란다 滿洲의운터ー스포ー츠는 거의스케ー트에限하여잇서서 女性들사이에서도優秀한 選手가 數만히 輩出되고잇스며 最近에는 一般國民의 體位向上, 冬季間의健康을위한 屋外進出에도 스케ー트가 큰役割을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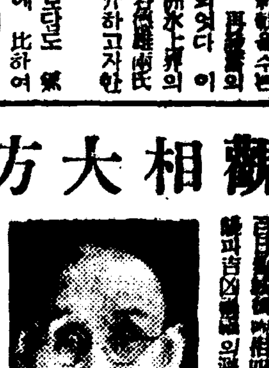
滿洲氷上에優勝한 滿洲하키ー軍(上)과 滿洲女子스피ー드

東亞 참기름 開城 東亞製油所

이라는것이 판명되어다 이엇대는 십사일새벽 쪽제비가죽유백장을 훔처가지고 곳서울로온것이다

三十年絕對保證 新出現 ウラクーミシン 總發賣元 大洋ミシン商工社 有給分店大募集 有給駐在外務員募集 天下一品

肺患 必讀 **診斷常識**
…당신은… ●적게주조해가지는안는가 ○약간기침과 담이나오지는안는가 ●三十七度一二分의熱이每日午後부터 夕陽에걸처서 나지나안는가 ○盜汗과 不眠이 繼續되지나안는가 ●어쩐지 몸이무겁고 胃腸도나빠지고 食慾不進의 날이繼續되고 動悸가나고 숨이갑브고어깨가결리고 가슴이 아프지나안는가 이것은肺病初期의 외症狀입니다… ●기침이 안어지고·담이 만코 때로血痰이 석기지나안는가 ○貧血과 衰弱이 더하고 顏色이나빠지지나안는가 ●每日三十八度가차운 熱이나지나안는가 ○咽頭、不眠、喀血、泄瀉、便秘 胸痛가튼 苦痛이업는가
…이것은肺病의第二期症狀입니다… 그러나 悲觀마시요 正當한療法으로 **肺病은!** …治療된다…正當한療法… 肺알는이는 只今곳『朝鮮日報에서보앗소 朋보내시요』라記入한 葉書를 左記의寺로 보내시요 肺病의 金言을 基礎로해서正當한治療法을가르킨『肺病治療의原理와 寺傳秘方公開』光明のあなたへ」의二冊을 **無料送呈**합니다 빨리이가르침으로 肺病 肋膜炎을 征服하라 大阪府布施市 功德山 德林寺

觀相大方家 松谷先生은昨年七十二歲玉甲八月에江原道揚口山에 ... 富吉榮作

京城府漢江通町五十一番地(漢江通小學校前塚)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背癤에기피돈어렵고 오래된痛毒을잘낫게합니다 京城府長橋町八 發賣本舖 慈祥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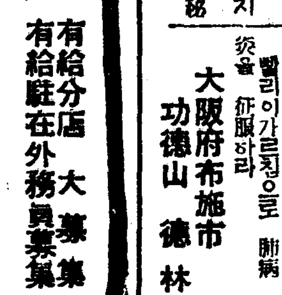
慢性 모히中毒 太黑薰先生創製 無苦痛根本療法 **ネオボンヌーチン** 發明完成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てんかん ヒツキ ケツキヒ 富吉榮作

당신의靑春과健康에 每月의生理에 ズーリープ

여러분月經時의걱정거리는解消합니다! 孔壽貞
近代女性의家庭必備品 朝鮮一手販賣店 株式會社新井藥房 代理店 株式會社淸津新井藥房

◎姙娠한분에急告◎ 新案特許 **安産メーター進呈** 安産 **ワグカルシューム錠** 大阪市西淀川區大仁東一丁目 和田卯助商店

急告! 사람차저주! 金行坤君 ... 昭和十五年一月 日 完州郡雨田面石九里 金行坤母 李惠貞 白

金行坤君

醫學博士 三浦民雄 內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三浦外科**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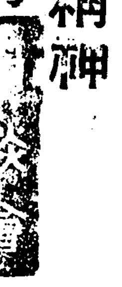
文壇新年의 호픽展望

學藝

詩壇의 現狀과 希望(中)

이時代의 性格과 精神

林和・金光均



林 요즘에 登場하는 新人들의 作品이 大槪孤獨과 悲哀로서 充滿하여 잇다는데는 이러한 根據를 들수잇지안흘까요. 그들 新人은 일찌기 燦爛한 過去를 가지지 못하엿다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가튼 現代에 直面하고잇는 詩人으로서도 傾向詩나 『모더니즘』의 洗禮를 밧고온 사람은 萬一의 境遇에는 다시한번 過去로 도라갈수잇스나 그러한 所謂마음의 故鄕을 갓지아니한 新人은 그저 孤獨하고 漠漠하고 悲哀만을갓게되는 것입니다. 이點에서 나는 오늘의 新人들이 體驗하고잇는 切迫한心情에다 一種의期待를 갓습니다

金 左右間 지금의 詩人들이過去로 못가겟다는것은 確實한 損失이지요. 그러나 過去로도라갈수업는 대신 現代에執着하고 거기서 前進하든가 退却하든가 하는길밧게업는것은 新世代의 자랑할수잇는資格이지요.

林 그럿습니다 이點에서 나는 『만하임』가튼사람의 말을재미잇게 生覺합니다. 民族精神은 遺傳되고 時代精神은 習得되고 世代精神은 體驗을通해서 形成된다는데 恒常 새로운體驗을 爲하여는 恒常 새로운世代가 必要한것입니다. 現在우리의 新世代라고불사람들도五六年前과는 確實히 다른環境에서 산다는것은事實입니다.

金 그러나 三十年代의 詩人들과 우리가 思想이나 感情이나 感覺이 根本的으로 다르다고는 할수업지안흘까요? 그러나 三〇年代에 나온이들과 그뒤에 나온사람들과의 사이에 現實을 享受하는 態度의 差異가잇슬건 事實이겟지요.

林 時代의 性格은 『센스』나 趣味方式의 差異가튼것이겟지요. 그러니까 文學上에서 이런差異를 世代의 形式을비러이야기할수는잇습니다

金 將來에는 文學精神이나 世界觀上의 差異에 까지도 發展할수잇슬것입니다

林 그럼으로 時代에 對한 細緻한 觀察은 確實히 新世代의 特點일것입니다 언제가 徐寅植氏가 朝鮮日報紙面에서 『인제 世代는 갈데로 갓다 그럼으로 『그들』은 不可避的으로 現代를 낡은 立場에서 生覺하게된다』고 말하엿는데 傾聽할 意見이라고 생각햇습니다. 다 오늘의新世代가 現代에서 살아서고 잇는것은 아직 그들이 自己의 體驗을 하나의 精神에까지 組織化하지 못한 때문이지요그럼으로 新世代의 精神的成熟을 促進하고 助力하는것이 新世代의 誠實한 義務의하나일것입니다.

金 그럿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時代의 道德을 整理해서 新世代의 精神의自己形成의十數를 討論에 주어스면 하는것입니다.

林 그럼으로 新世代의 精神的 內容이 貧弱하다고 그냥 그들의 誠實을 懷疑하는것은 前世代의 一種의 傲慢입니다. 新世代가 그以上더 나갈수업는어떤障壁에 當面햇슬때 그것을突破할만한 勇氣가 醱成되는것을보고 이것을 積極的으로 바로고 바르게 引導하는것은 誠實한 文學者의態度라고 生覺합니다.

金 勿論 그럿습니다. 그런데 그 新世代도 비록 技術的으로는 未熟하다고하드래도 作品에 現代를 사라가라는 精神에 떠나서 조화作을 쓰라고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林 그리고 이것은 좀 딴問題입니다만 現代詩에서 形式的完成이 可能할까요? 即 말하자면 二十世紀 詩의 古典이될수잇는 것이란든가

金 글세요.

林 『파-헨』의詩는가저 完成된形式의 標本입니다.

金 어렵겟지요 詩人이 하루바삐 自己思想의位置를 確定하고 거기에安住하기前에는 말하자면 混沌된時期에 잇서서는 完成된 形式美는 바라기 어려울것 갓습니다. 小說가튼 것은 二十世紀의 小說이라고할수잇는 一種의典型이라고할수잇스나 詩는 그러치못하지안흘까요

林 아마 이點에 現代詩의 困難이 잇슬것입니다. 그러므로 亦是 現代詩는 不斷한 試驗을 거처가야 할것갓습니다. 二十世紀는 實驗의 世紀라고 하지 안하요 어떠한 意味에서이고 現代는 摸索과 實驗의世紀라고 生覺합니다. 이點에 잇서서 나는 英國의 (New Country) 一派運動을 興味잇게 注目하고 잇슨 運動이라고 生覺합니다. 紹介하여 새롭은 理解하기실것입니다. 아마 英國가치 詩의 傳統이 굿센 나라는 世界에도 드물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三〇年代에 『오-덴』『스펜서』『데이・루이스』等을 中心으로 『뉴・컨트리』(New Country)運動이 일어낫다는것은 지금의우리로서는 如干注目할點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쨋거나 根本的으로 새로운 精神이 發見되어야 形式이고 內容이고 救出될것입니다.

火曜評論

미켈랑젤로의 敎訓

李軒求

요새는 一人金融家의 代에따라 國家이 다몃승이라는것이 現實國家이요 그것을 完的으로는 實現되고잇다 全하게實現까지 할수업는 이러케까지 生活의가 거이다. 假令某人의歌 지가지에尺度의制約를 精이라든지 또는偉大 밧는다. 이러한點은 이 한藝術家의가진『이때 미 우리가 文章을쓰는 안』에對해서는 오히데 制約者로부터 몃 려 우리의自由로운敎 批評家自身되는 制限을 바다잇다. 이러한形式的制約에따라 그다음 생각되는것이 그內容이란것이다. 이內容에 對한것이 흔히는批評家의손에서 裁斷된다 그러나이 裁斷이란것이 運動家의가치正確하기도 어려운것이요 또 그러케 數字로 計量할수도업다.

◇……◇

偉大한思想이란 時斷념어 또 낡은바 그 무엇이잇다 孔子의弟子가 그스승을 바다에 比하고 自身을 한줌 흙에比햇다는 事實은 오늘까지도 眞理로써 通用될수잇다.

◇……◇

『미켈안젤로』를 거의尺度한것이 얼마마한 藝術과 기피를가젓느냐에 한번反省할必要가잇다 『미켈안젤로』를 充分히理解한다는것만으로 現代美術을理解하는것이 아니라고 해도이 그만큼消化되고完成된 을생각해보자 이것은 現在우리가 가지는 文化全般에對해서 共通으로 느껴지는 事實이 어니와 이 貧困이라는것은어떠케究明할것인가 하는것이 하는것이 우리는 詳論하지안할까 우리는 이것을 理解하고 우리가 가지려는 科學 우리自身의 貧困이라는 ◇……◇ 그러나다시우리는우 리는 藝術의 바다라는 것을 規定하기前에 누구가보다라도 한발을 얼수잇는 完全性을 가지게하는데 우리의努力의자취가 남는것일 것이다 아무리 精密히 測定되어도 完全한 하나가 될수잇는 努力이어서 다시 더큰그릇으로 아갈수잇는것이다 우리는 그릇의大小의 에 어떠케정은 그릇일 망정完全에가깝도록그 그릇을채우는 것이 되의 眞마努力이 무엇이 다. 必然하지안흘까?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盆梅

押　灰韻部

期限　一月末日 (消印有效)

世界의귀

英國史의著者 戰爭小說을計畫

『英國史』의 著者로서 佛蘭西의 有名한 傳記作家 『앙드레・몰로아』氏는 第一次大戰때에는 英國野戰軍總司令部에 連絡將校로서 勤務한後 『부랑・쿨르大佐의 沈默』이라는 『유모아』섞진 小說을 써서 人氣가 잇섯는데 이번 歐洲戰爭이 일어나자 英佛連絡將校로서 從軍하고잇는데 이번에는 『부랑・쿨르大佐의 아들』이라는 小說을 쓴다고 벌르고 잇다한다.

"하이픈"의 受難

●말이란것은 時代를 따라서 점점 변하여가는데 或은不滿하게 리젓은이 잘 모르는사람이 아는사람보다 더 만타. 『라디오』『드라마』라는말을 現代의 大家 『헤밍웨이』도 모르고 죽엇슬것이다

假令 얼마전에 우리 英語에 새로 생긴 新語를 紹介하면 이러하다 新語 『불랙・아웃』(Black-out)이라는 말이 새로 생겻는데 燈火管制時에 불을 끈다는것을 이르는것이다가 아마 『웹스터』大辭典 補遺에도 아직 업지안흔가 한다.

●이와關聯해서자미잇는이야기가잇다. 이러한새말이나온다든지 하는것은 戰爭과가튼 새事態가일어나슬적에 이것을곳利用하려고달려드는것은 出版社다. 그래서倫敦의 出版社들이 한데법석이되어가지고 冊을내는데 한 곳에서 『The Black-out Book』이라는 冊을 내엿다 그의 性質로 『Black-out Book』이 면다른곳에서도 『The Black-out Book』이 라고 "하이픈"(-)만 더키는것을 그대로 내놋는다 그런例로는 『Wartime Cookery』라는것과 『War-time Cookery』라는것도잇다. 以下略 그래서 이런冊을 사려드러 오면 書店主人은 손님에게 『그 "하이픈" 잇는것입니까 업는것입니까』하고 말해야된다니 까다로운 世上이다.

新春隨筆

梅花(上)

李泰俊

차겁더라도 豊富인 옷은 다듬이살이 울라야하고 덧문까지 封하더라도 추워야만겨울맛이랑 저녁상에 된장이 한그릇운 날은 으레 밧앗날이 찻고 水仙이 송는 길네 얼엇던 고개를들고 안해의 찬 손이 동칠이 그릇에서 어름쪽을 골라내이는것은 먹어봐야만 느낄맛이 아닐러랑. 겨울의 寒冷이 너무 차다는것은 우리의 溫情이 너무 뜨거운 때문. 우리亦寒梅이나 梅花가틈라이면 겨울이 더위선들어찌하라

압山 눈이 여러날째 한비치라, 마루에서 山 가까운것이답답할 때도 잇스나 요즘 가라선 우리마당을 寫해 둘러친 한쪽 屛風이다 앙당한 松林과 휘칙한 雜木들이 모히렌 모히고 섬긴데 섞기어서 그 肅然의 調和는 完然 水墨의 筆法으로 山그늘이 바야흐로 지러갈지음 어저어저 이끌재기를 차자드는 맛은 나귀는 못 라슬망정 孟浩然의 探梅情趣가 언지 안흔 바로다.

○

서울겨울이 차되 梅花를 뜰에 심을수업도록 차것은 야박한 입입다.

前村深雪裡
昨夜一枝開

란 句를 보면 梅花는 雪中에서 피는것이 本性이런만 서울추위는 氷雪까지라도 얼리니 梅花도 꼬치데야 더욱 어찌하랴! 梅花를 조하함은 于先 옛선비들의 雅趣를 思慕하는데서 부러러니와 지난 가을에 누구의 글인지는 모르나

放翁道人無坐性
閉門十日探梅花

란 所言句를 어든後로는 어서 겨울이되어 이글씨아래 梅花한盆을노코 閉門十日을 해보려는것이 간절한 소원이엇다.

梅花란 고혼꼿치기보다 맑은 꼿치요 담기보다 매운 꼿치라 그러므로 色이는것이 그의 자랑이 못되는것이요 複葉이 그에게는 무거운 옷이리라 單葉白梅를차자 꼿치고개부터 다니것이 도리어 탈이엿더니 봉오리 매침이 적고 빗같이 푸르기만한것으로 꽃과사와더니, 봉오리는 차츰틈어지고 피는것을 보니 게다複葉까지라 孔雀과가튼 愛은 잇슬지언정 재어찌 丹頂鶴의 淸雅을 버릴수잇스리요 처음失望하지 안흘수 업섯스나 그러나 하로아침 크게 놀란것은 참안사람이 오후 放心하여 零下十度가 넘는밤 명그런 누마루에 그냥버려두어 水仙과 蘭草는 얼어죽엇다 그러나 紅梅라도 梅花만은 송이마다 꼿술이 聰然잇는 겨집에속누설처럼 도리도리해主人을 반기지 안흔가!

梅花를 淸寒이라하나 梅花의 苦節을 일코한것이요 梅花를 百年盆 노앗드래도 暖房이 完備되엇스면 梅花의 苦節을 바다보기 어려우리라 節操란 무릇 퍼러기 어려움에서 나고 차고 가난한데서 그의 產地라 人情이니 生活이니 罪이니한도 진짜의것에 또한 苦節의 方域을 버서나 찾기는 어려울을 알리라.

어서 겨울에는 지난겨울에 차지 못한 單葉白梅를 그에 차자보리라.

藏書餘聞……(完)

焚書

金午星

나는이방에서 처음으로 내冊파더부러가장親密한 時間속에서살수가잇섯다 그래서나는 아프고 別世하만엇스면 藏書冊과함께 이방에서 오래 살어보리라고 생각하엿든 것이다 그러므로 작년여름 안해가經營하는商店이 바빠저서 한여름을讀冊만남겨두고 漂井里에서 지내면서도 나는그것을읽겨울생각을 하지안엇든것니다 가을까지商店이바빳고 겨울이되니하도 寂寞한듯하여 나는 겨울동안을 서울가나기로햇다 그래서 十一月初에 내書齋에 들려 藏書를 一一히 檢査해보앗다. 떠러저잇슨지 얼마안되는동안이라 아무런 異狀도 업섯다. 그길로나는 上京해서 約一個月半을 무사히지냇다. 十二月中旬 안해가 危篤하다는 電報를밧고 나는 親舊들에게 가노란 人事도업시 그날밤으로 내려왓다. 高城某病院으로 떠메고와서 안해를 看護하든동에 이災難을 當한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내藏書와作別한지 約二個月間 그러니까 내가 서울가노라고 떠나는길에 들렷든것이 最後의 作別이엇든것이다. 率直히말로 사랑스러운 愛人을 永遠히 잃어버린서름도 놀라버린 내愛書를 술퍼하는그以上 더하지는못할것갓다. 이것이 그애인에게는 罪스러운생각일는지는 모른다—

× ×

나의 六百의藏書는 世上의 一般藏書처럼 蒐集한 趣味, 즉 藏書熱에서 모아진것이 아니며더욱이 책상치레로 사드린 것은아니다 뉘가 讀破나치레거리로서 밥을굶어가며 헌버서가며 家族의怨聲을 눈감어가면서 蒐集한 드란말이냐? 그런 자난은 나가지탐과는 緣부러언은 八字소흔 사람들에게나 잇슬일이다.

나는 참말로 읽기爲해서사드렷고 또 아무리 읽으려고모아드린것이다. 그러므로 내六百의 藏書가운데는 내가專門하는 哲學과 및그에 關聯되는 書冊外에는 別로업섯던것이다. 어느親友보다도 어느愛人보다도 더 불러살어가며 되려햇다 그리하여 하잘한 느러가는 내藏書 그만큼 내 精神을 키워주고 북도다주는 것이라 생각해왓다.

나의貧弱한 六百冊의 藏書는 이제내게서 永永 사라지고 말엇다. 나는 나의 藏書가 나의生命보담은 몃百倍나 더 長壽할것을 미더왓다. 그러므로 나는 내生命을 消耗해서 내藏書를 充實해가려햇다. 그것은 나의有限한 生命을 無限히 延長시키는 한개의方法이라고도생각햇다. 그러나永久하리라 미덧든나의藏書는나의 生命보담도 몃갑절짧게 내눈아페서 사러지고 말엇으나 내 藏書들이라 버린것은十五年間의내 苦鬪의 痕跡을 불살러버린것도 된다. 이것만도 哀惜하다. 허나 그보담도 이제알의 가장 미듬잇든 作品을 잃엇다는것이 더욱痛恨하다. 그리고 두개의 寶庫感이 나를더욱괴롭핀다. 數만흔 諸作者에對한 罪스러운생각과 내子孫 또는 그藏書를 물너가질수잇는 未來의 世代에對한 未安한 생각이다. 火災가 나의 不然만이 아니라 내個人의 不然만이 아니라 생각되면서도, 그래도 그災殃에서 藏書를 救出치못한責任은 내가 질수박게 업다. 勿論 내貧窮한藏書가 아니라도 그들의 勞作은 如實이 傳承될것임에 틀림업을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田園에서 엇서도 그만큼 人類文化에對한 損失을 가저오는것이라고 어나 ……엇더 나는 어쩌보다 무엇에 依하여 무엇으로서 어떻게 가릴것인가?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四)

金萬善 作　洪祐伯 畵

다단 지나는것은 죽게다는 악이다. 물속이 나무텐면 빗지도안코 그러고 거미줄하듯도 아니다 다소곳이 귀담어만 섯을 하는것이다 그러나 꼿꼿내는 의례히 죽게되는것이다.

『어서어서 그러나 주엇으면날이나 수면이 살겟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것이엇다 그런 뒤면 그의 마음은 어시 슬프다 아픔을 두어번지 못한 고통이상으로 가슴이 아픈 숨통이다 축을것까지야 무엇이 잇는가 죽을 겨심까지 한다면 그만한 결심으로 신용을 회복할수도 잇을것이다 동정도 안가는 말이다.

지영은 쇠뚝이 될대로 되어 아래ㅅ말로 향한다

아래ㅅ말 웅덩이에서는 쇠뚝이패의 고기잡이가 한참이다. 정마는 그들에게 또 한가지의소일거리를 제공하엿다 버들 아래ㅅ가지에는 질서업시 저삽고이가 함부로 걸렷다

『휘저라 휘저!』

쇠뚝이의 지휘가 떨어지자 범거숭이들은 팔도 물을 때리고 적고 발로 짓밟고 법석을 한다 물속의 진흙이 풀려 웅뎅이의 물은 점점 걸어진다 얼굴에 튄 흙이 말러 변양이 된것들도 모른다 경치해진 흙탕속에 여기 저기서 메기의 큰 입이 물어난다 숭어의 머리도 베진다 그러나 새끼기를 마신 고기들은 또 숨어버린다 조무래기들은 쫏차가다 실령하고 더욱 흙탕을 맹들어 논다

경히는 조그마한 복어를 두손으로 쥐고 가에 서잇다 복어의 꺼츠를 배는 꽁가치 동글고 바람이 불엇다 복어를내려다 본다 경히는 웅덩이속을 내려다 본다 그러나 복어를 잡던때와 가치 쉽게 고기들은 가스로 나타나지를 안는다.

『뒤에잇다 뒤에! 아니 쇠뚝이 뒤말야』

경히의 신기한 발견이당 쇠뚝이 뒤에 긴 수염을 단 메기가 큰 입을 벌리고 어물어릉한다.

『어디야 어디!』

해 돌아선 쇠뚝이는 잡서 허둥댄다. 그러나 바로 아메잇는 메기를 발견하고 덥석 두손으로 잡는다.

『잡엇다!』

노끠 처둥린 메기는 허여시찌를 명대 희처다 자랑하는다.

『어구 큭 나!』

다른 놈들 꺼 가보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감감하고 잇슬수가업다 재것은 아니니까 더욱 눈을 부릅뜨고 고기를찻는다.

경히의 눈도 부릅욱에 가루찬다 재것을 내려다 본다 북어의 배가 꺼젓다 깜짝 놀라 복어의 흙탕에 입을 대고 흑흑 바람을 잡아넷는다 북어의 배는 다시 동글게 팽팽 해진다 하늘을 가볍게 쉬고 또는 을 웅덩이로 보낸다.

그순간 밤미리 무섭하게 징그럽다 무엇인지 밤미를 파고든다.

『어마!』

놀래 물러선다 그바람에 북어를 노첫다 밤미를 봣다 뱀장어다. 그러나 경히락 뱀장어를 잡으려 안고 노친 복어를 찾는다.

복위에 뜬 복어는 둥근 배를 위로두고 제처진채 달아나지를 안햇다. 가에서 조금 밀려나갓다.

『쇠뚝아! 내 복좀봐!』

경히는 쇠뚝이를 부른다.

『잇니? 어데서?』

반가운 나스로 쇠뚝이는 물속이라 느리게 달려온다.

경히는 발을 구른다.

『여기 이것좀 봐』

그러나 쇠뚝이가 재켜진 복어를 발견하고 잡으려할때 복어의배는 홀꺼지고 달아난다 죽은듯이 알엇던 복어는 지금까지 죽은듯 꾸며던것이리랑. 경히의 호흡은 새색 급해간다

『이놈자식!』

복어에게 놀림감이 되엇스니 쇠뚝이도 화가났다.

『난 몰라, 힝……』

경히는 쇠뚝이에게 트집잡는다.

『왜 남보구 그래』

쇠뚝이는 좋아서며 입을 삐죽 내민다.

경히는 눈물어린 눈으로 이쳐던 뱀장어는 내려다 본다. 뱀장어는 아직도 구녕을 찾는지 머리를 진흙에다 비비고잇다. 경히는 징그러워 잡을 생각을 못한다. 그러나 쇠뚝이에게 알려주기는 실탓.

『경히야!』

강건너에서 부르는것갓다. 귀를 의심하고 참어본다.

全朝鮮의……

獨學青少年諸君!!

無學은 男의 恥

立身出世의第一步는 爲先中學卒業에서

自宅을 學校로 單只一年으로 쉽게 全科卒業!

最新 中學講義

어디보다도 會費가 싸다……

어디보다도 알기쉽다……

어디보다도 卒業이 速하다……

006318

◇學科目 은左와如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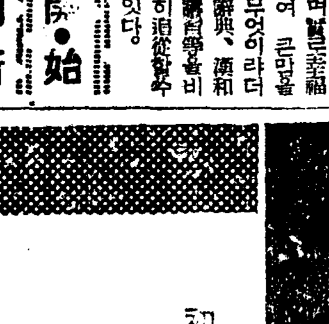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法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이러한 新式의通信敎授法은스피-드時代에適合한理想的組織으로서 本校의最新中學講義錄 外에는어디든지 斷然코업다.

卽中學校正科를全部網羅하고 挿畫를만히 너코 講義는 親切平易를第一로하야 趣味잇게 工夫할수잇스며 더욱 質問이 잇스면 먼 東京滿洲間이라도 先生이 또바로 郵便으로 明快하게 質問에 回答한다.

◇小學校 만을 卒業하고 나오시는분이 몃千萬이나되지만 不幸히도家庭의事情으로 上級學校에가지못하고 곳實社會로 나가는분과 家業을 도우시는분이 만흡니다 이러한 有爲한 靑年들이 小學校以上의 工夫를 繼續하지 안코 時日을 虛送하는것은 當者뿐 아니라 國家 日本을 爲하여서도 슬픈일이다.

◇今日의 實社會에서 成功하려면 實際小學校를卒業한것만의 實力으로는 充分치못하다. 複雜한 社會의 第一線에서 活動하려면 아무리하드라도 中學程度의 學問이 업고서는 決코 大成하지 못할뿐 아니라 將來의 生活까지도 不安할것이다.



本年中에는 쉽게 卒業할수잇다!!

只今곳入會하면……

◇그리고 家庭의 形便으로 中學校로 通學할수업고 希望에 불타면서 徘徊하는분들은 어떠케할것인가? 그러려면 本校의 最新中學講義錄으로 工夫하는것이 第一조타. 中學講義錄으로 世上에 만히잇지만 單一個年(速成科는半個年)의 短時日에 스피-드로 卒業할수잇고 愉快하고 趣味잇게 卒業할수잇는것은 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 달리업다.

◇入會하면 每月二冊씩 講義錄을 東京에서 滿洲各地의 諸君에게 送本하고 따로 趣味기픈 優秀雜誌를 一冊씩 送本하므로 每月三冊의 配本이 되어 自宅에 안저서 家業을 도웁는한편 朝夕으로 單一個年이면 中學全科를 卒業할수잇다.

每月 講義錄…二冊 機關誌…一冊 合計三冊씩配本하고 學費겨우一個月一圓 其外여러가지의大特典附로

◇大特典 會費는 右揭한바와가트며 어디보다 싸며 獨學生諸君을爲하여 큰마음을 奉仕的으로 提供하니 고무어이라 더욱 그우에는 獎學金과 英和辭典, 漢和辭典의贈呈, 日曜無料講習會等을 實施하여 다른데서는 到底히 追從할수업는여러가지 大特典이 잇다.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方今昭和十五年度 新學期開始되다 只今이야말로 獨學開始의 찬스이다 少年은 易老하며 後悔는 압서지 안나니 工夫는 젊을때에 할것이다. 그러면 諸君 本年으로부터 반드시 이完備된 理想의 最新中學講義錄에 入會하여 將來立身成功活躍의 基礎를 만들라.

見本一冊進呈

葉書로申込하면見本規則 一冊無代進呈함. 나중에는이저버리니只今곳보내시요

東京市牛込臺町九
大日本通信中學校　朝鮮課

最新男性賦活ホルモン

セキマイソ

세기마인

鯨睾丸製劑

初老期, 老年門의 活力減退 疲勞倦怠感 肩凝, 耳鳴等

靑年期, 壯年期의 神經衰弱 記憶力減退 頭重等

包裝 三〇錠 一〇〇錠 五〇〇錠

本店 大阪道修町　支店 東京本町　製造發賣元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有名藥店にあ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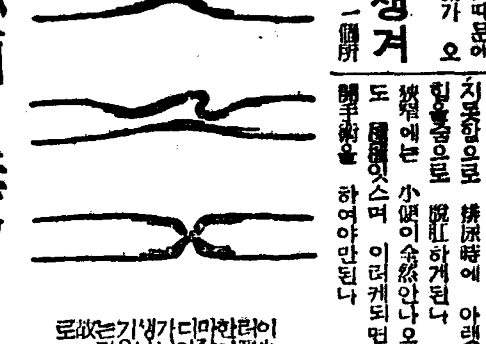
淋病藥

淋疾은根治식혀라

웨淋疾은잘아니낫는가

秘密病인까닭에

尿道에마듸가생겨



이러한마듸가생긴다

(尿道狹窄圖)

可恐할 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毒性류ー마치스

愛兒를장님으로

最愛의妻에 感染된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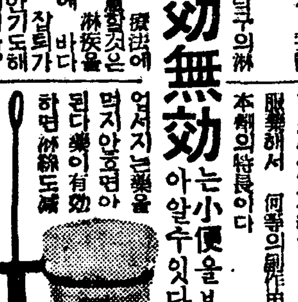
淋疾患者는

內務大臣을會長으로

如何한藥劑를 選擇할것인가

內務省衛生試驗所 封緘의 台淋劑六種을主藥으로해서 配劑한 許可濟治淋劑이다

藥의有效無效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도라구專賣所를차지라

有田 別製 治麻劑

急性慢性再發淋病

有田畜松堂謹製

別製 驅毒劑

有田ドラッグ

事變을契機로한 朝鮮工業躍進相

金光淳

總督府發表의 統計에依하면 事變勃發以後 第一年인 昭和十二年中의 工業總額은 十一億四千十一萬八千五百餘圓으로 이것을 昭和十一年의 九億五千九百三十萬八千三百餘圓에 比하면 一億八千八十一萬二百餘圓, 十六%의 增加이고 다시 事變前年인 昭和十一年의 七億三千五百四十三萬圓에 比하면 五七%의 激增을 보이엇다 그리고 別로히 前年度增加率을 보면 金屬工業의四十五%가 最高이고 다음엔 機械器具工業의三十八%, 窯業의三十%, 製材及木材製品工業의 二十二% 化學工業의 十四% 食料品工業의 十四%의 順序로되어잇다.

다음에 十二年의 工業額을 業種別로보면 化學工業의 三億五千二百八十一萬圓(三十一%)이 最多이고 食料品工業의 二億七千七百二十七萬圓(二十四%) 紡織工業의 一億六千四百八十二萬圓(十五%) 金屬工業의 九千四百九十六萬圓(八%)의 順序이다 [illegible]

一、躍進의 基因

[illegible]

藏相巨物起用으로 統制貧困을打開

期待되는新內閣의政策

大命을 拜受한 米內海軍大將은 目下組閣中으로 十六日中에는 그完了를보게될터인데 藏相은 巨物主義로 町田民政黨總裁 池田元藏相 寶屋元藏相 結城日銀總裁中에서 決定되리라한다 藏相에巨物을마지하여야하는 理由는 一言으로하면 統制의 貧困을打開하자는데잇슬것이다 獨逸파가치 統制가잘되지안는 原因은 國民各層各級에 統制의組織이 整備되지못한데 잇는것으로 統制하는官과統制를밧는 民과사이에 間隔이커서戰時經濟의 運行이 잘進捗되지안코잇스므로 物資物價問題를비롯하여 國民生活安定을 爲하여서는 統制經濟의 百八十度의大轉換이要請되고 國民에게安心을주고 最低限度生活에 滿足케하려면 國民의信賴를 밧는 財界의元老나 第一人者가 아니면 그力量手腕을 期待할수 업는때문에 前記四氏가 有力視되는모양이다

▲池田氏는 여러번 藏相을지내고中央物價委員長으로서 物價問題를 解決하는데 努力해온터이 인만큼 難局에잇는 지금氏의藏相就任은 民間의絕對 歡迎을밧고잇다 ▲町田民政黨總裁로말하면 [illegible] 萬總裁에게 藏相의 자리를주어 百年大計를 세우고가장 焦眉의急인 인플레防止, 國民生活安定의重任을 마키어 보려는데서나 오는것으로볼수잇다 ▲寶屋氏는 前藏相의經歷이잇고그우에 現在北支開發會社總裁의자리에잇서 事變을 中心으로한 經濟動向에 밝아 有力後補에 오르고잇는모양이다. ▲結城日銀總裁亦是 元藏相으로서이미經歷잇고 戰時金融統制의 重任을마타서 今日까지比較的조흔 成績을 내인터이라 町田, 池田, 寶屋三氏의 就任이안되면 次善者로서는 當然視된다

官僚統制를是正

左右間에 現在 物議에오르고잇는 諸人物을보아도 所謂巨物主義에 重點을두고잇슴을 알겟는데 現下 諸國內問題의 中樞를占하고잇는것은 亦是財政經濟問題인 만큼 이點에서보아 藏相이누구로決定되느냐 할것은 新內閣의性格을 決定하는데잇서서 가장 重大한 要素의하나로되어 잇슴을알겟다 事變以後近衛內閣當時의池田氏가退場한以後로 石渡, 靑木等 純官僚出身이 藏相席에 잇서 所謂官僚的經濟統制를 實施하여온바 이러한 官僚統制는 財政經濟界의實情에어두운 官僚들에依하여 遂行되엇기때문에 此間에無用한摩擦을 惹起하여온點도 만타. 그리고 今般阿部內閣이 退陣케되는가장有力한 原因의하나도亦是官僚統制의 諸矛盾에 잇섯스니만큼 漸次財界의 바람―財界의實情에 通曉하고잇는 人物을 藏相으로서 要望하는 소리가 時局下財界方面에서 强하여젓다. 이러한 情勢下에 所謂巨物을 獲得하는데 米內內閣은 努力할것으로 보이는데 藏相에 누구를 마지할가는 米內內閣의 强力性을 忖度할한개 『바로메-타―』가될것이다

勞働者斡旋協議

[illegible] 來十八日 [illegible] 堂으로 決定하엿다

午前十時부터 總督府社會課와京畿道社會課關係官 列席下에 勞働者斡旋協議會를열고

一、昭和十五年度 勞働者斡旋에關한件

一、勞働者募集에關한件

一、勞働力調整에關한件

等을附議하여 檢討키로되엇다

東亞産業貿易 三月十日創立

鮮支貿易을業으로하는 天津의 東亞産業貿易株式會社(資本金二百萬圓四分의一拂込)設立에 對하여서는 客臘以來 數回에 亘하여 發起人會를열고 準備中이든바 株式의申込이 完了되엇스므로 來二月下旬頃 第一回拂込을 徵收한後 來三月十日前後 創立總會를 開催키로되엇다

米倉職制改正

米倉에서는 從來의係, 主任制를 採用하엿는데 今回이것을更改하여 庶務, 審査, 營業, 經理의四課制를 採用키로되어 一月十五日附로如左히人事異動을發令하엿다 ▲高木左人 命審査課長兼庶務課長 ▲長谷川隆太郎 命營業課長 ▲中辻義雄 命經理課長 ▲越智巧 命中辻課長不在中經理課長

懸案解決·四月부터 輸出補償法實施

朝鮮貿易의一層飛躍을期待

總督府에서는 時局下 國際收支의改善을 圖謀하고저 貿易振興에 積極策을 講究하기로되어 昨年八月부터 輸出前貸金補償制度를實施하여 好成績을 거두고잇는데다시 輸出補償法을 實施하여 貿易金融의 一層圓滑化를 期하기로되엇다 그리고實施期는 大體로 四月頃부터 될것으로보이는데 輸出補償法은 輸出手形을 國家에서 補償하여輸出金融의 圓滑을 圖謀하는것인데 이것이 實施되면 朝鮮貿易은 一層飛躍할것으로 期待되어잇다

滿關支向海産物 輸出機構를擴充

南朝鮮地方水産物의 對滿支輸出에 對하여는 釜山의 朝鮮海産物支那輸出組合이 從來斡旋을하여왓는데 事變勃發以來 滿關支方面에의 朝鮮海産物 輸出이異常한 躍進을보이고 最近에는年百五十萬圓以上의 貿易額을示하게되엇스므로 이에對處하기爲하여 右組合의機構를 擴大强化하기로하고 右組合을 朝鮮海産物輸出組合으로 改組하여 從來의 國內販賣 斡旋은 朝鮮貿易協會에委讓하고 同組合에서는 朝鮮海産物의 出荷統制를하여 總督府政策에 協力하기로 되엇다

朝鮮貿易協會決算

朝鮮貿易協會에서는 오는三十日午後五時부터定時總會를開催하고 左記利益金處分案을附議할터이다

當期利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法定積立金 [illegible] 別途積立金 [illegible] 稅金引當金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配當(年八分)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十三年工場統計 生擴의全貌表示

紡績業의後退가顯著

商工省에서는 昨年十二月下旬에 十三年工場統計速報를 發表하엿는데 이에依하면 事變第二年度의 生産力擴充狀況이 具體的數字에 依하여 顯著히表現되어잇다 卽 生産額은 百九十四億八千七百萬圓으로서 事變이勃發된 十二年에 比하여 三十一億三千百萬圓(一九·一%)의 增加이엇다 第一次歐洲大戰이 勃發된 大正三年의 十三億圓에 比하면 實로 十五倍에 該當한다 그리고 이것을 工業別로보면金屬工業은 全體의 二五·五%로서 機械器具工業의 二〇·二% 紡織工業 一九·五% 化學工業 一七·八%, 食料工業 九·二%로되고 以下其他의 工業製材及木材品工業, 窯業, 印刷及製本業, 瓦斯及電氣業의順位로서 其合計는 十九億一千百萬圓 卽全體의九·八%에 達하엿다 다시前年과의比較에서 主要工業別로보면 機械器具工業 四八·七%, 金屬工業 三〇·八% 食料品工業 二一·四% 化學工業 一九·六%式 各其增加이엇고 反하여 紡織工業은 七·二%의 減少이엇다 또이것을 道府縣別로보면 東京은 生産總額의 一六·三%로서 第一位를占하고 大阪의一五·九%가 第二位이며 兵庫의九·二% 福岡 八·八% 神奈川七·五% 愛知七·三% 等이고 其他四十道府縣의 合計는 三二·六으로 되어잇다

工業別生産額 (單位千圓, 比較%는印比)

	十三年	前年比增減率
紡織	[illegible]	△七·二
金屬	[illegible]	三〇·八
機械器具	[illegible]	四八·七
窯業	[illegible]	[illegible]
化學工業	[illegible]	一九·六
製材及木製品	[illegible]	[illegible]
印刷及製本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	[illegible]	二一·四
瓦斯及電氣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一九·一

(備考=瓦斯及電氣業은 副産品의 生産額만을 表示한것이다)工場數總數는 十一萬二千三百二十九工場으로서 前年에比하여 六千三百二十四工場(六%)의增加이다 工業別로는 機械器具工業은 二〇·一%, 金屬工業二〇·五%, 化學工業六·五%

國策에相應 營業政策樹立

時局對處懇談會開催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來十八日午後二時부터 同所會議室에서 京城府內 各種商工組合長 約七十名을 招致하고 時局經濟對處의 懇談會를開催하고 時局에對處하여 國策에相應할 營業政策의樹立等에 對하여 協議키로되엇다

店員短期養成

戰時下 統制經濟의進展은 自由主義經濟時代의 常識이나 經驗法을 가지고는 到底히營業할 수업게 되엇스므로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短期店員 養成所를 設立하고 如左한要項으로서 講習生을 募集하야 商店員에時局의重大性과 商道精神의 覺醒와 適切한 商業知識 商業技能과 商人道의 [illegible]

道에必要한 德性及 短期間內에 商業學을 傳授하여 經濟國策에 順應시키기로 되엇다 卽府內商店의 店員으로서 年齡十三歲以上十八歲까지의 小學校卒業 以上의 者八十名을 募集하여 오는二月

滿洲粟輸入促進

組合理事를新京에常駐

總督府에서는 今米年度의 米穀不足에鑑하여 代用食의充實을 期하고저 滿洲粟의 大量輸入의 計畫을進行하고잇는데 現在까지의 實績을보면 반드시成績을 거두지못하고잇스므로 그의積極的打開策을 講究코저 朝鮮糧穀中央會에서는 同組合永 [illegible] 輸入理事를 新京에常駐시켜 買付에萬全을期하기로되엇다 또 十一月以降一月上旬까지의滿洲粟 輸入高는 七萬九千六百四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여 七萬二千五十五石 卽約半減이라는 不振을示하고잇다

米穀의買付 下旬부터着手

農林局에서는 內地移出及朝鮮內需給調節을 爲하여 玄米換算으로二百五十萬石 (內地移出米百五十萬石,朝鮮內調節米百萬石)의 米穀을 買付하기로 된바 入手完了된 二十萬石의 第一回內地移出分을 除外한 二百三十萬石의四割乃至 五割을 우선買付키로決定하고 本月下旬부터 買付에着手하기로 되엇다 殘餘는 內地移出(又는北支, 滿洲輸出)의 대신漸進的으로 買付하여 豫定石數인 二百五十萬石은二月中旬까지엔 完了할豫定이다 또買付의主體는 道의配給組合으로移出米는 米穀會社에서 朝鮮內調節米는 各道에서 總督府의 指令에依해서 移出하기로되엇다

全朝鮮의 手形交換

昨年十二月增加

京城手形交換所調査=昭和十四年十二月中의 朝鮮內手形交換高는三十六萬七千九百六十二枚, 四億四千四百五十四萬八千二十八圓으로 前月中에 比하여 六萬九千一百五十八枚 一億一千六百八十九萬九千百八十七圓, 前年同期에 比하여 三萬八千四百十八枚 一億四千四百四十七萬五千九百四十五圓의 各各增加이다 交換所別 內譯은如左하다(單位千圓)

	枚數	金額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蒙疆豚毛獸毛 歐米로輸出

日滿實業協會朝鮮支部에온 情報에依하면 支那事變勃發後 蒙疆地區의 金融과 産業의綜合經營을目的으로서 蒙疆銀行의손으로設立된 蒙疆公司는 最近의歐洲戰爭의 影響을바다 俄然活況을呈하고 豚毛는 歐米에向하여 一手輸出되어 獸毛皮革(羊毛를除함)을 包頭, 厚和, 大同方面에로 集貨하여 이것을 天津의獨逸貿易協會에 送荷하고 獨逸의 資材購入에充當할 外貨獲得의 先陣으로서 積極的活動을 開始하엿다

農具의補助決定

明年度에九十二萬圓

總督府의農務課에서는 朝鮮의食糧需給의 決定的安定을 주는 重要施策으로 朝鮮米增殖計劃을 實施하기로 十五年以降 十一個年計劃으로 約六百八十萬石의 朝鮮米增産을 目標로 實行하기로 決定된바 이 增殖計劃에 依하여 重要農具整備를 하기로 決定되어 農林局에서는 昭和九十二萬圓을 支出하기로決定하엿는바 其補助金交附要項은 如左하다 ▲病虫害防除補助金(噴霧器等) 五十九萬圓▲深耕犂(畜力用等) 三十三萬圓으로 되어잇다

紀元節祭典에 事業關係者參列

總督府에서는 紀元二千六百年 記念行事로서 來二月十一日 奉祝式典을 擧行하는데 其에 各産業界代表者 卽 農林水産業者, 鑛業者, 工業者, 商業者, 交通業者, 勞働者等 五十名을 選拔하여 參列시키기로 決定하고 來月八日 京城

漢銀異動

漢城銀行에서는 一月十二日附로써 如左한 異動을 發表하엿다 ▲營業部行員 金內圓 命西大門支店支配人代理▲西大門支店支配人代理 李彰洙 命南大門支店支配人代理▲營業部行員 李商用 命全州支店支配人代理▲營業部行員 洪鍾旭 命營業部出納役

株式 形勢觀望 浮動

前場往來 休日을지난今朝는 米內大將의 登場으로政局의 安定에向할것을 好感하고 東新은 百五十圓一 鐘新二高인 百二十三圓丁에 少堅寄付된後組閣工作을 觀望코 積極性이업서 引際에는 反彈되어 從來屬伏을 呈하다가 結局東新百四十九圓八 鐘新百二十二圓二에 大引

後場同調 後場은 東新一低인 百四十九圓七, 鐘紡百八十三圓丁 鐘新一低인 百二十二圓一에寄付後 不變모양이엇다

組閣完了待

阿部內閣이 退陣한뒤를이어 米內內閣이 誕生의道程에 잇는데 米內大將은 一般의 豫想外의人物이고 또財界에서 가장關心을 가지고잇는 藏相의 椅子도아직 確定을보지못하엿스니만큼 今後의組閣完了를 기다리고잇는狀態이다 그러나 財界는 米內內閣에 對하여 大體로 好感을 가지고 그것이 事變處理에 邁進하기를 一致告待하고잇는터이므로 市況도따라서少堅모양이어서 多少間의 歡迎的氣分을 띠고잇는데 今般新內閣은 國內問題, 事變處理하여야할것은 勿論 國際關係도 同時에 調整하여야할 重責을 負荷하고잇스므로 眞實로 名實具備한 强力內閣이라야 할것이다 米內內閣이 果然 이重責을 勘當할수잇을는지 하는點을 注視하고잇어 推移를 觀望하고잇서 形勢

國際問題重視

事變下第四次政變으로 드디어米內大將의登場을 보게되엇는데 이에對하여 株界가 大體로好感하엿서도 國外에 冷靜한 人氣를 保持하고잇는 原因을 생각하여보면 現下諸情勢로보아 國內問題는 卽 國際問題이오 國際問題는 卽 國內問題이라만큼 兩者의聯關이 密接한이때에 日米通商問題는 其間에等의 好轉을 보지못하여 [illegible] 無條約時代를 現出이必至로되엇고 國內的으론 國民生活이 直接『이혼리』의 威脅에 잇는等 重大問題가 山積되엇스므로 누가 首班이된다하여서 無條件으로 歡迎할수잇는 狀勢에

㈱……後繼內閣首班 米內大將에對하여는 財界에서도 그背後를 생각코 大體로好感하고잇는듯 ▲그러나 財界에서가장關心을 두고잇는 藏相席이 未決이므로 形勢推移를 觀望▲그리고 米內內閣이 果然强力內閣이될는지 하는點도 組閣完了를보아야알겟 그뿐아니라 株界로서는 强力의性格을 問題삼고잇스나 大歡迎도 못하는모양 ▲要컨대 組閣完了를기다려 判斷을 할수밧게 업을듯

內地株式		滿支株式	
[illegible]		[illegible]	

朝鮮物强調

鮮株는 滿蒙과는逆行的으로依然物은買氣가 旺하여 松櫻이 作物은一般으로 兩調整色하고 特히朝鮮物에 全體的으로 買付되어우선銀이 百四十圓, 新五十九圓으로 一圓高이엇고 國産自動車가 一圓高인三十四圓 弘中新도 八十三圓五로 一圓高이엇스며 其他滿水電, 小林鑛新, 日本마네新等도 두一圓가량의高騰을示하엿다

今日現株市勢 (正午)

[illegible]			

米延 賣買全無 不成

前場不成 依然無氣力이어서 今朝도모두延米에는 成立이 업섯다

後場無賣買 後場도亦是無氣力 相場에推移되엇다

今日의市勢 十五日

▲東京國債 (甲號五分一) 日 [illegible]

朝鮮物價 十五日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預金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illegible]

◆大阪手形交換高◆ 枚數 金額 [illegible]

綿油粕·麥粉

◆阪神綿粕◆(十疊) [illegible]

◆阪神綿油◆(百斤) [illegible]

今日財界 十五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銀坊主三等)一斤三錢五 玄米(銀坊主三等)一石 [illegible] 七分搗白米小賣價同三圓 [illegible]

◆雜穀(京城、卸賣價) 大麥 一六〇斤 [illegible] 裸麥 二二〇斤 [illegible] 大豆 二四〇斤 [illegible] 龍山三等 [illegible]

◆紗(今日後場、先限) [illegible] 朝新 東新 鐘紡 鐘新 [illegible]

◆商品 綿布 棉花 [illegible]

十字銃

▼…滿身創痍의 阿部內閣은 드디어 退陣하고 米內內閣이 陣痛中。

▼…新內閣은 從來와 官僚統制를 是正할것이라는데 財界는 歡聲。

▼…財界希望으로선 自治統制의 範圍를 擴大하는것이겟지。

▼…去年末에 發表된 十三年工場統計를보면 時局産業의 躍進과 紡績業의 後退가 顯著히。

▼…犧牲産業으로서의 紡績業이 今後如何한 動向을 밟을는지가 注目處。

▼…中小紡績會社의 前途이 어大會社에게까지 [illegible] 不安할것으로 [illegible]

㈱ 鄭運得證券取引店 京城府黃金町

三田原取引店 京城府黃金町

朝取短期 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實定代引日步取組

[illegible]

株式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以上朝鮮銀行賣

延米 (正租百斤單位)

[illegible]

大阪短期 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棉花

[illegible]

綿布

[illegible]

生糸

[illegible]

三國志 【四〇】

韓龍雲 譯 熊超 畫

李傕郭汜의亂 (五)

임금이 기뻐서 말을하되 『짐이 동도를 생각한지가 오래더니 이제야 도라가게 되엇다』 하고 장제로 표기장군을 봉하니 장제가 양식과 술과 고기를 여러관원에게 공급하엿다 파사는 공경을 노아보내고 이각은 군마를 수습하야 홍으로 향하여 어렷든 수백인이 창을 가지고 임금의 수레를 호종하니 신풍을지나 패릉에 이르니 때는 초가을이라 서풍이 이러나더니 홀연히 고함소리가 크게 이러나며 수백군사가 다리우에 이르러 임금의 행차를 막으며 『저기 오는것이 누구냐』 하게를 시중 양기가 말을채처 다리에 오르며 『천자의 행차가 여기 지나거늘 누가 감히 막느냐』 두장수가 나오며 『우리는 파장군의명을 바더 이다리를 지키며 간사한 무리를 방비하노니 만일 임금의 행차임신대 친히 임금을 보아야 바야흐로 머드리란다』 양기가 주렴을 노피거으니임금이 효유하되 『짐의몸이 여기잇거늘 경이어찌 물러가서 안느뇨』 여러장수가 다 만세를 부르고 양편으로 갈라서매 임금의 수레가 지나갓다. 두장수가 도라가 곽사에게보하니 곽사가 말하되 『내가 정히 장제를 혼내고임금의 수레를 겁박하여 다시 미오에 드리려고자 한것인데 너의가 어찌 천단히노아 보내느고』 하여 두장수를 베이고 군사를 이르켜 쪼처가게 되엇다. 임금의 수레가 화음현에 이르니 뒤에서 고함소리가 하늘을 울리기며 크게 부르짖되 『거가는 움기지 말라』 하거늘 임금이 울면서 대신에게 말하되 『겨우 이리의 굴을 버서낫는데 또 범의입을 만낫스니장차 어찌하리오』 여러사람이 얼굴빛을 일허니 도적의 군사가 점점 가까히오자 산위로서 한장수가 나오는데 아메세운기에 『대한양봉』 (大漢楊奉) 네글자를 크게 썻스며 군사천여인을 거느럿는지라 원래 양봉이 이각에게 패한뒤로 군사를 이끌고 종남산(終南山)아래에 둔첫다가 임금의 행차가 이르를 듯고 특별히와서 보호하는것 이엇다. 명이로소이다』 임금이 서황을 위로하엿다 양봉이 임금을 보호하여 화음에 이르러 머무를새 장군 단외(段煨)가 의복과 음식을 바치고 천자는 양봉의 진중에서 쉬엇다. 이튿날에 파사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직처와서 진아패를 거느리고 이르는지라 서황이 먼저 말을 나가니 파사의 대군이 팔면으로 에워서 천자와 양봉이 정히 위급한중에 잇더니 홀연히 동남쪽에서 고함소리가 크게 이러나며 한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말을 노아 직처오니 도적의 무리가 무너저 다라나는지라서 황이 형세를타서 엄살하여 곽사의 군사를 크게 패하엿다. 그 장수가 천자께 뵈오니 그는임금의 친척되는 동승(董承)이라 임금이 울면서 지내일을 하소연한대 동승이 아뢰되 『폐하는 근심치마소서 신이양봉으로 더부러 맹세코 이각 곽사 두도적을 베여 천하를 평안케 하리다』 임금이 명하여 속히 동도로 가게하고 밤을도아 홍농으로갓다 곽사가 패한 군사를 이끌고 도라오다가 이각을 만난지라 곽사가 말하되 『양봉과 동승이 임금을 구원하야 홍농으로 갓스니 만일 산동에 이르러 자리가 정돈되면 반드시 천하에 영을나려 제후로하야금 함께 우리를 치지니 그러면 우리는능히 살수를 보존치못하리라』 양봉이 진세를 베풀매 파사와 이각장수 최용(崔勇)이 말을나와 『반란도적 양봉아』 하고 부르니 양봉이 크게 노하야 진중을 도라보며 『공명(公明)이 어데잇느뇨』 하니 한장수가 큰도끼를 들고 화류마를 달리어 곳 최용에게 취하야 싸운지 일합에 최용을 베이는지라 양봉이 형세를타서 엄살하니 파사의 군사가 크게패하야 이십여리를 물러가거늘 양봉이 군사를 것고 천자께 뵈오니 천자가 위로하시되 『경이 짐을 구원하니 그공이 적지아니하다』 양봉이 머리를 두리려 사례하는지라 천자가 다시 뭇자오되 『도적의 장수를 베인자는 누구요』 양봉이 그장수를 이끌려 수레아래에 절을 시키며 『이사람은 하동양군(河東楊郡) 사람 서황(徐晃)이오 자는 공